



## 영어전용강의,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영어전용강의 수강이 이제 일종의 “필수(must)”가 되어가고 있다. 현실에서 많은 학생들은 수강신청기간이 되면 남모를 고민에 빠지게 된다. 특히 영어전용강의를 이제까지 한번도 수강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나 경우 학교에서 영어전용강좌 수강을 장려하고, 다른 학우들도 듣는다는 이야기에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영어전용강의를 수강하려고 한다면, 영어전용강좌를 둘러싼 몇 가지 괴담을 먼저 극복할 필요가 있다.

전 세 재  
숙명여대 영문학과 교수

### 영어전용강좌 괴담 극복하기

#### 1) 영어전용강의는 영어 잘하는 학생들만 수강한다.

→ 그렇지 않다. 영어전용강의는 수업준비를 철저히 하는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다. 영어를 매개로 해서 강의가 진행되지만 교재와 각종 연습문제가 모두 활자화된 영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업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영어구사 능력과의 절대적인 상관관계는 없어진다. 실례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연습 복습 부족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거나, 교수의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반박(?)을 받는 경우가 수도룩하다.

#### 2) 영어를 못하면 학점이 낮게 나온다.

→ 그렇지 않다.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연습과 복습, 그리고

과제를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점이 낮게 나오는 것이다. 보고서를 쓰거나, 조별활동 혹은 중간·기말시험이 걱정이 된다면,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 3) 영어전용강의는 내용의 깊이가 없다.

→ 그렇지 않다. 한국어 강의나 영어전용 강의나 내용의 깊이를 좌우하는 것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와 학생의 태도에 달려있다.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강의와 마찬가지로 표현능력의 부족으로 심도 있는 설명과 질문을 못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질문하도록 노력하면 되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강의 후에라도 교수자에게 질의하면 된다. 적극적인 태도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위에 열거한 영어전용강좌를 둘러싼 괴담들을 극복했거나,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어전용강좌를 처음으로 수강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을 것이다. 왜 없겠는가? 영어 말하기, 쓰기, 발표하기, 듣기, 그 어느 것 하나 자신있게 잘 한다고 말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영어전용강좌를 마냥 피해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용기를 내어 수강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어떻게 강의를 준비하고, 수업을 따라 갈까 걱정이 태산같을 것이다. 그렇다고 꾸어다 논 보리자루 마냥 뒤에 앉아서 남들이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을 감탄하며 한 학기를 보내자니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영어전용강의를 수강하는데 몇 가지 유용한 학습전략이 있다.

## 영어전용강의 학습전략

### 1) 영어전용강의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와 표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

영어전용강의라고 해서 앞뒤 순서없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강의가 그렇듯이 자주 쓰이는 용어와 표현들이 있는데, 우선 이런 용어와 표현들을 반복 습득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과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중간시험범위는 어디인지? 질문

은 어떻게 하는지? 에 대해서는 몇가지 표현들을 암기하고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표현들을 숙지해서 활용한다면 영어전용강의를 수강하기 위한 1차적인 준비는 마쳤다고 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다양한 표현들을 모두 외어서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자신에게 잘 맞는 표현을 한 두가지만 정해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수업시간에 써 본 다음, 다른 표현들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전용강의에서 쓰이는 전형적인 표현들은 교수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학습법 워크샵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인터넷 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 2) 말하지 않으면 나는 수업의 들러리일 뿐이다. 말문을 떼자!

영어전용강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수업 중간에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다. 강의의 성격상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처음으로 영어로 수업시간에 말문을 떼는 것은 해보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첫 번째 시도로서는 매우 힘겨운 과정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꿀떡은 병어리로 혹은 들러리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말문을 열자.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면 된다. 교수님이 항상 하는 질문들이 있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혹은 무엇을 배웠는지’,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의문나는 점은 없는지’, 혹은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질문은 없는지’ 와 같은 질문은 항상 나오게 되어있다. 가장 나중 질문은 그 순간의 순발력이 필요하겠지만, 앞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학생도 있지만 대다수가 한국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발음이 어색하거나, 문장이 잘 안 만들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한 답을 용기를 내어서 또박또박 말하라. 시작이 반이다.

### 3) 멍치면 산다!

영어전용강의를 수강하다보면 뭔가 빼먹은 것이 있는 것 같은 찝찝한 느낌을 받은 적이 많을 것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수업시간에 기가 죽기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이럴 경우 강의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게릴라식의 스터디를 준비하면 된다. 반드시 영어를 잘하는 학생과 함께 스터디를 할 필요는 없다. 스터디의 목

적은 비슷한 실력의 학우들과 함께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고 앞으로 배울 것을 함께 영어로 연습하면 되는 것이다. 3~4명 정도가 모여서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영어로 학습내용을 점검해 본다면, 매우 수준 높은 내용의 영어회화연습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4) 발표는 영어로 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 있다!

영어전용강의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영어로 발표하는 것이다. 발표는 가급적이면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으며, 화면상에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핵심어와 개념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영어로 하는 발표에 있어서도 서론, 본론, 결론 부분에 항상 쓰이는 표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첫부분에는 자신의 소개, 발표주제, 전체적인 구성 등 전형적인 형식을 취하는 부분을 숙지하면 큰 두려움없이 영어 발표를 시작할 수 있다. 또한 각 슬라이드마다 따로 노트를 마련해서 내용을 발표하면 된다. 그리고 절대로 책 읽듯 하지 말고, 천천히 설명하듯 또박또박 대화체로 말해야지, 책을 읽듯이 발표를 할 경우 발표를 듣는 학생들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 힘들고, 발표자는 오히려 나중에 많은 질문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내용을 암기할 때까지 반복, 또 반복해야한다. 본인이 처음 발표를 했을 때는 약 30번 정도를 연습했다.

#### 5) 교수자와 교내 영어학습센터를 200% 활용하자!

아무래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시 놓친 부분이나 의문점은 교수자의 학생상담시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독학하는데, 교수자의 상담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이다. 또한 영어로 된 보고서 혹은 영어 발표문등과 같은 것은 교내의 무료 영어학습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각 대학마다 English Cafe, 혹은 English Clinic과 같은 기관을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학습전략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각자 나름대

로의 학습전략 수립과 그 전략에 따른 꾸준한 실행이 더욱 중요하다. 매 학기가 지날수록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구사능력의 향상과 영어전용강의 개설 수와 수강률은, 국제화에 따른 교환학생의 증가와 함께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므로 쓸데없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 내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준비하자. 더 이상 변명거리를 찾아 헤매지 말고, 당당하게 준비하자. 영어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이 도구에 주눅들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자. 도구의 주인이 되자. 이 도구는 여러 번 다뤄 본 사람만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준비만 제대로 한다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보다 우리가 더 능숙하게 영어를 사용하면서 영어전용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분명 그렇다.

## 제17차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영어논문 작성법 워크숍

[일 시] 2008년 11월 6일(수) 오후 2시~5시 [장 소]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20호

[진 행] 자연대, 공대, 농생대, 수의대 등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의 대형강의

### 올바른 과학기술 논문 어떻게 작성하는가?

김형순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논문 10%만 고쳐써라』 저자)

[문 의] 학습지원부(880-1327/5418, hsy06@snu.ac.kr)